

2018 인천 소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붉은 노끈 날개 ▪ 우체국 택배 상자 ▪ 셔틀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용 플라스틱 투명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모두 정물대 위에 3개씩 2. 정물대는 눈 높이 위치 3. 정물대 위에 흰 천 안 깔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스타벅스 tall size 정도 2. 상표, 뚜껑은 없었음 3. 개인당 1개씩 의자 위에 놓여져 있었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회용 컵을 왼 손이라고 문제지에 쓰여 있었음.

<재료>

1. 시험장에서 제공 : 이젤, 화판(2절 크기 정도), 3절 켄트지(백상지 아님), 필요에 따라 집게, 연필, 지우개 제공
2. 응시자 준비물 : 4B연필, 지우개, 칼
3. 집게, 마스킹 테이프는 언급이 없었지만 모두 다 썼음.
4. 4B연필 제외 다른 연필(2B, HB 등등), 재료 사용 불가. 그러나 휴지, 지우개 가루 정리용 작은 빗자루는 쓰신 분들 있었고, 감독관이 제지하지 않음.

<시간>

1. 3시간
2. 실기실 가운데에 180분 초시계 있었고 잘 보였음.

<장소>

1. 2층
2. 일반적인 교실 2~3배 정도 되는 크기로 직사각형 모양. 수용인원 30명 까지도 쓸 정도 크기. 예고 큰 소묘실이라 생각할 것.
3. 20명이 한 고사실에서 봤음에도 앞, 뒤, 좌, 우 공간 여백 충분. (테이블 당 10명씩, 총 2테이블)



<그림 관련>

1. 가로, 세로 자유 (대부분 가로로 그림)
2. 배경 유, 무 자유 (정확히는 문제 읽고 생각해서 풀라했음. 감독관이 자기가 출제위원 아니라 모르겠다함) 근데 대부분 배경 안 그림 (70%는 안 그렸고, 30%는 그림)
3. 방향, 위치, 크기, 개수 변경 가능 but 형태 왜곡 불가

4. 대부분 이대 실기처럼 그림. 정물 소묘 같이 안 그리고 발상과 표현처럼
5. 정물대 그린 사람 본 기억 없음

<그외>

1. 관리번호는 시험시작 전 대기실에서 수험번호대로 추첨.
2. 화지에 인천시교육청 도장 찍혀있었고, 앞 뒤 구별 없이 도장만 있으면 된다고 말해줬음.
3. 화지 오른쪽 상단에 관리번호 쓰인 스티커 테이프 붙여야 함. (감독관이 나눠줌, 테이프에 감독관 싸인 필요)
4. 실기실 매우 따뜻하니 두껍게 입을 필요 없음. 심지어 어떤 분이 히터 꺼달라 그랬음.
5. 인천만 그럴지 모르겠지만, 감독관들 되게 잘 웃어주고(미소 정도), 착하고, 발음 정확하고, 인상 좋았음.
6. 화장실 고사 도중 갈 수 있고, 수능처럼 복도 감독관이랑 동행해서 이동함. 시험 도중 한분만 나갔던 걸로 기억.
7. 시험 시작 전에 A4용지로 개인당 1장씩 문제지 나눠줌. (시험 직전 1분전 쯤)
8. 문제지 역시 관리번호 써야 되고 끝나고 제출함.
9. 문제지에 그려야 할 것들 명시 되어있었음.
10. 시험 끝나고 이젤 위에 그림 올려놓은 채로 퇴실. 그래서 모두들, 서로의 그림을 볼 수 있었음.
11. 감독관이 가끔씩 한 바퀴씩 돌아다니긴 했으나, 거의 움직이지 않았음.
12. 감독관은 처음에 1명 남자분 (예고로 따지면 과대표 선생님급?)이 안내해주시고, 나머지 여자 선생님 2명이 화지, 문제지 나눠주심. 그리고 시험 중에는 여자 선생님 2분이서 계셨음. 두 분 다 40대 이상 연배로 보였음.

2018 인천 전공 (서양화)

	
<p><필수 정물> 꼭 그리시오.</p>	<p><선택 정물> 5개 이상 그리시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붉은 노끈을 묶은 배추 ▪ 흰색 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대한 곰 인형 (배추보다 큼) ▪ 코카콜라 페트병 500ml ▪ 사과 (붉은 빛) ▪ 검은색 모자 (상표가 저렇게 긴 세로로 되어있었음) ▪ 신라면 봉지 라면 ▪ 분홍색 장우산 (아동용으로 화려함, 사진과 비슷) ▪ 초록색 호스 (묶음 아니었음, 사진보다 형광빛 초록) ▪ 전구 (투명 아님, 흰색)

<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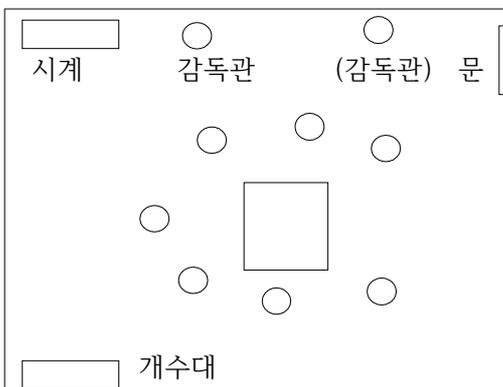
1. 이젤, 화판(2절 크기 정도), 4절 켄트지 : 시험장에서 제공 (이젤, 화판 마음에 안들면 교체 가능)
2. 응시자 준비물 : 수채 용구
3. 연필은 2B, 4B로 제한 (원래 언급 없었는데, 감독관님이 공정성 때문에 그 자리에서 제한 두심)
4. 집게, 마스킹 테이프, 깎지, 걸레, 휴지, 분무기 사용 가능했음 (명시되었는 건 아녘음)
5. 시험 시작 전 실기실 내 개수대에서 물 떠옴. (화장실도 가능)

<시간>

1. 3시간
2. 실기실 11시 방향에 180분 초시계 있었고 잘 보였음. 중간에 어떤 분이 잘 안 보인다 해서 조금 옮기긴 했으나 다들 잘 보이는 위치였음.

<장소>

1. 테이블은 중앙에 1개. 그 주위로 3명, 4명으로 총 7명에서 시험봄.



<그림 관련>

1. 가로, 세로 자유. 전원 가로로 그림
2. 배경 유, 무 명시 안 돼 있었으나 모두다 배경 그렸음. 그냥 정물 수채라 생각하면 됨.

3. 방향, 위치, 변경 가능 but 형태 왜곡 불가, 이번엔 개수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다들 1개씩만 그림.
4. 수험생 중 2분 요즘 style. 5분 휴대폰(2000년대 초반 광선 주면서 오렌지계열 배경에 원색과 무채색으로 그리는 그림)으로 그림.